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

동북아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일 두 나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일 양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고이즈미 총리를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조금 전 정상회담을 갖고,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반 상호 관심사에 관해서 폭넓고 매우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저는 작년 6월 한·일 공동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함께 열어간다는 비전을 재확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양국간에 전략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일 두 나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 협상안이 제시되어 실질

문제를 논의하게 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협상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저는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서 한·일 및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포괄적·구체적인 남북경협사업'을 시행하고 일본은 평양선언에 입각하여 북·일수교와 대북경협에 적극 나서는 등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한·일간 FTA 체결이 양국관계는 물론 동북아 경제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나라 국민간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고이즈미 총리는 내년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우리 국민에게 우선 한시적으로 일본 입국비자를 면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두 정상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교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가 양국 국민간 우호 친선을 저해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양국 정부 당국

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조기 정착과 재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각종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저는 한·일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두 나라 정상이 격식에 구애받음 없이 보다 빈번하게 상호 방문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정치인 교류와 시민사회간의 교류와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식견과 한·일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열의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일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우리에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소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 질문 : 노무현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듯이 지금 북한 핵 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베이징 3차 6자 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아주 유연해 지고 있고, 특히 고이즈미 총리께서는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에는 북한과 향후 1년 이내에 수교를 성사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시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북핵 문제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구상을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께서 특별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 **노무현 대통령** : 북핵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다할 만큼 진전이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이 짚어보면 한 발짝 한 발짝 진전해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6자 회담 때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조 기자가 표현하신 대로 그것이 급류이었거나 또는 적어도 9월 6자 회담에서는 급류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정상회담 그 중에서도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큰 행사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행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든 바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소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지금 북핵문제를 놓고 한국, 일본, 미국이 공조하는 가운데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미국의 태도가 매우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입장으로서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핵문제에 대한 발언권에...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북한의 입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지를 면밀히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정부가 그와 같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서두른다는 것은 결코 북핵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남북관계에 관해

서 대화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될 때라야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약속한대로 답방하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만났으면... 회담에 나와주기를 바랍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또 그것을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종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일본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호간의 신뢰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 측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개방과 개혁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일본의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만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고 또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이 성공했을 때 일본이 북한을 어떻게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일본은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이즈미 총리께서 북한을 방문해서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고 어려운 남북자 문제를 풀어내고 또한 북일 간의 수교의 전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번 6자 회담에 있어서도 일본이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회담 분위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또한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또 G8 회담에 가서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결국 북핵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설득의 노력들을 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미 하고 있는 기여입니다. 앞으로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미 해 오신 대로 3자 공조를 토대로 해서 6자 회담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북한과 일본의 수교와 또 수교 이후의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지원 같은 것에 대한 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 고이즈미 총리께서는 방금 전에 북일 수교문제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간에 말씀하셨던 1년 내 2년 내에 북한과 수교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신 입장에서 조금 물러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 등 많은 여러 가지 난관을 말씀하셨지만 북한 핵 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고 나올 경우에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 주시는 것이 핵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 정부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특히 올 9월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이 동해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올 연말이 되면 지금 진행 중인 대북경수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 **고이즈미 총리** : 북한하고 수교와 관련해서는 후퇴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는 북한이 일조 평양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언제든지 수교를 할 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납치문제, 미사일 문제, 핵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2년 내에 하고 싶고 빠르면 1년 내에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북한 쪽에서 일조 평양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수교를 할 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후퇴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북한에게 핵을 갖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적습니다. 그것보다도 핵을 폐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서 전달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6자회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개최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미북 사이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이며 일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미사일 문제도 같습니다. 미사일 방위는 일본의 자주방위를 생각했을 때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미국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한국하고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로 케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 한국측과 잘 협의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

▷ 질문 : 노무현 대통령 잘 부탁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양국간에 일본과 한국에 특히 스포츠, 문화교류가 많이 활발해 졌다. 다만 그 한편에 정치적인 문제, 역사인식 문제, 야스쿠니 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 여러 현안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금 현 시점의 인식 그리고 이런 장벽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 생각대로 솔직히 모든 것을 내놓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솔직하게 때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고 분위기만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혼삿날 그런 장삿말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좋은 날은 되도록이면 좋은 말만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재론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제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공식적인 회담과 협정도 있고 또 그밖에 정부간에 공식적인 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新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로서는 과거사 문제를 정부로서는 과거사 문제를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서 정부간에 새로운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또 생점화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사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일간에 새로운 미래,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논쟁하고 또 양국의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 모두가 각기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공사석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표현을 하는 일은 그것은 가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한 우리 많은 국민들은 아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는 실로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과거사 그 자체 문제보다도 과거사에 대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역사교과서 문제가 크게 쟁점화됐고 그것이 한일간에 한일학자들간에 공동연구기구가 만들어져서 공동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과 프랑스간 독일과 폴란드간에는 아주 정부까지 참여하고 민간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를 통해서 역사 자체 아니라 역사교육의 방침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서 두 나라 사이의 역사 문제가 독·불 사이, 독·폴란드 사이에는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 일본 총리 시절에 일본 정부가 대체 참배시설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관해서 아직 우리 많은 한국 국민들 가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 일본 국민 내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서 합리적인 좋은 지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그러나 반대로 한국이 이 문제를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을 때 일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 도대체 사과를 몇 번해야 되느냐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 양국 국민의 정서가 그와 같이 서로 다른 한 양국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떤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식의제로나 공식쟁점으로서는 제 임기동안에는 제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 저는 양국 국민들간에 활발한 민간교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인식의 폭이 서로 좋아지고 그래서 어떤 해결의 방침이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지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양국 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